

2026. 4. 1
수요일(주간)

제 863호

등록번호 광주 다 00100
(1999년 7월 2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是

복음·선교·화합

정통 기독교 신문 미션리

발행·편집인: 박 현 주
발행소: 미션21
인쇄처: (주)대한칼라
대표전화: (062) 367-9109
FAX: (062) 367-9108
e-mail: ph2330@nate.com
(우)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8(월산동
184-1 동삼빌딩)

미션21 입금계좌
농협 645-02-066108
예금주: 박 현 주
국민은행 573-01-0045-028
광주은행 146-127-005850
예금주: (유)미션21

구독 및 광고문의 (062) 367-9109

2 보도 -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모색'



한반도평화행동과 (사)북북문인학기년사업회가 오는 2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포럼을 갖는다. 국내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과 세션, 2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반도평화 공존을 위한 발전과 토론 등이 진행된다.

3 인터뷰 -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후보간 합종연횡과 단일화 등으로 통합 광주전남특별시장 선거 경선권이 요동치면서, 신정훈·주철현·민형배·김영록 네 후보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국회의원과 장관, 재선 전남도지사를 거친 김영록 예비후보에게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목적과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미션리 f 미션21 페이지 @ims21tv
http://ims21.tv
독자와의 소통을 넓혀가겠습니다

"4월 5일 오후 4시 광주순복음교회로"

'복음·연합·선한 영향력' 주제 2026부활절연합예배

'전남광주특별시'를 위한 특별기도도

2026광주광역시 부활절연합예배가 부활절인 4월 5일(주일) 오후 4시 광주순복음교회(한상인 목사 시무·광주 남구 봉선로 52번길 29)에서 열린다.

이번 연합예배는 광주광역시 기독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석은 목사·이하 광고협)가 주최하고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5개 구 교단협의회 공동주관, 광주성서화 운동본부, 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광역시장로교회협의회, 광주기독교단협의회 및 미션21,

광주CBS, CTS광주방송 등 기독교 언론사가 후원한다.

'복음·연합·선한 영향력'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6부활절연합예배 강사로는 광고협 직전회장 이종석 목사(새로운교회)가 초빙되어 '부활신앙'(고전15:12~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제1부 예배는 광고협 수석부회장 나종갑 목사의 인도로 상 운동본부, 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광역시장로교회협의회, 광주기독교단협의회 및 미션21,

렐루야 찬양이 이어진다. 이날 연합예배에서는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한국교회 회복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국가와 통합전남광주특별시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도한 후, 광고협 상임고문 문희성 목사의 축도로 제1부 예배를 마친다.

제2부 환영과 결단의 시간에는 광고협대표회장 정석은 목사의 부활절 메시지에 이어 상임부회장 한상인 목사의 부활절 선언문, 직전 상임고문 이원재 목사의 폐회기도 후, 유태과 파송의 시간을 갖고 모든 순서를 마무리한다.



중동전쟁의 즉각적인 중단과 평화회복을 촉구하는 각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전쟁 폭력의 악순환 끊고 생명의 살림으로"

중동전쟁 중단과 평화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호소

건교사포럼·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등 55개 단체 성명

건강한교회와사회포럼(상임대표 이박행)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공동대표 강호숙·구교형·김승무·이문식) 등 55개 기독교민간단체가 지난 3월 23일 성명을 내고 중동전쟁의 즉각적 중단과 평화회복을 촉구했다.

"전쟁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생명의 살림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발발한 중동전쟁이 지역 분쟁을 넘어 수 많은 민간인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해치는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2월 28일 이란 미나부초등학교 공습으로 학생·교직원 175명이 숨진 것을 두고,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이들은 어린이와 노인, 여성과 장애인, 난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단 한 생명도 전쟁 전락의 부수적 피해로 취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참전 요구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한국군 파병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

은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평화를 증언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전쟁의 논리가 아닌, 고난받은 이들과 연대하며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교회 연합찬양대의 합창팀이 찬양을 관중들이 모두 기립해서 경청하고 있다.

"위대한 동행으로 이어진 공공문화의 울림"

바리톤 고성현 초청, 아가페컬처광주 창립기념음악회 성료

사단법인 아가페컬처광주(이사장 이상복 목사)가 지난 3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동명교회 영광홀에서 개최한 창립기념연주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관려화보 3연〉 "위대한 동행-광주·전남 세계의 빛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공연은, 교회연합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공공문화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이번 무대에는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교수를 비롯해 테너 장호영, 소프라노 박성경·정혜린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아가페컬처오케스트라, 연합합창단, 그리고 CBS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참여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전석 무료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는 문화 접근의 장벽을 낮추고, 교회와 지역사회

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공공문화의 가치(개방성, 참여성, 공동체성)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무대였다.

〈교회연합과 신앙 공동체가 만든 공공문화의 현장〉 이번 연주회는 광주동명교회, 광주번영교회, 광주중흥교회, 광주화정교회 등 지역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가페컬처연합합창단을 구성함으로써 교회연합의 실제적 모습을 구현했다.

또한 아가페컬처 오케스트라는 전원 크리스천 단원으로 구성·운영되어, 음악을 통한 신앙고백과 공동체적 헌신이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어냈다.

관객 구성 역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비신자가 함께 초청되어, 문화예술을 통해 교회와 사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공적 접점이 형성되었다.

에서 답을 찾다 이사장 이상복 목사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공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문화예술은 그 책임을 가장 따뜻하게 실현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창립기념음악회는 이사와 후원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문화로 여는 지역 공동체의 미래 이박행 실행위원장은 "행정은 통합을 선언하지만,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문화"라며 "이번 공연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문화적 실험이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공공문화선교를 향하여 아가페컬처광주는 이번 창립기념연주회를 출발점으로 청소년, 다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아가페컬처광주 사무국 062)225-0010

피종진 목사 3월 국·내외 부흥성회

010-5255-7777
Godness377@gmail.com

교육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 선교하는 교회

광주새순교회

GWANGJU SAESOOON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임종갑

섬기는 이

- 부목사 나형덕 김현수 김광원 김다현 주찬양
- 강도사 이상현 전도사 유경숙 최나은
- 원로장로 조동운
- 은퇴장로 김복기 박남희 윤형철 이영욱 이종도 이철주 박주엽 윤영선 안호석 임병원
- 목양장로 배영봉 김재진 김상진 서석만 이재성 이정일 장동현 정용성
- 시무장로 강경태 김현수 안성철 조성석 홍채훈 김덕관 김한석 박경수 박혜연
- 협동장로 최남식 임종빈

광주광역시 북구 모래대길 34 | Tel. 062-572-9595 | Fax. 062-572-9596 | http://www.saesoon.cc

예수 부활하셨네

제126회 광주제일노회 임원

- 노회장: 박춘식 목사(면류관교회)
- 회록서기: 이병남 목사(생명이있는교회)
- 목사 부노회장: 나강후 목사(예수가족교회)
- 부회록서기: 박성백 목사(좋은나루교회)
- 장로 부노회장: 박삼수 장로(창대교회)
- 회계: 이신규 장로(침대산교회)
- 서기: 최성인 목사(광주동명교회)
- 부회계: 김덕관 장로(광주새순교회)
- 부서기: 김준표 목사(빛가람회복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제일노회